

방송 콘텐츠 스토리텔링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방송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매체 시대가 된 상황에서 방송국은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수용자들은 넘쳐나는 프로그램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골라서 보기 때문에
방송을 제작하는 쪽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 콘텐츠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차별화된 콘텐츠의 다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송콘텐츠 스토리텔링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시의성과 유행성

방송 콘텐츠만큼 시의성 있는 아이템은 사실 드뭅니다.

시의성 있는 정보를 가공해서 콘텐츠에 녹여내면 내용이 새롭고
시기적으로 뒤져 보이지 않습니다. 방송 콘텐츠야 말로 이런 부분을 잘 다룹니다.

드라마의 주제 설정이나 기획 의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왜 지금 이 드라마를 방영해야만
하는지의 이유가 잘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바로 그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의 방송 콘텐츠를 보면,

유난히 교도소, 법원과 관련된 드라마와 예능이 많았습니다.

당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던 내용이 콘텐츠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행은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들이 즐겨 따라하는 행동 양식이나 문화입니다.

유행의 필수 조건은 바로 사람들 간의 정보 공유입니다.

최근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 방송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방송 콘텐츠에 내보내기만 하면 그 정보가 자연스럽게 유행을 탔다면
지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웹이나 SNS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송 콘텐츠를 거치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구체성

방송 콘텐츠 스토리텔링은 바로 **눈앞에 구체적인 대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책을 읽을 때처럼 추상적인 것과는 달리, 시청자가 받아들이기 훨씬 수월하며,

CG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다채롭고 구체적인 영상을 제공합니다.

③ 즉시성과 연속성

연극이나 영화가 일회성이라면 방송 콘텐츠는 즉각적이면서도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는 **매주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즉시적이면서도, 전체를 관통하는 연속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라면 미니시리즈나 연속극의 형태로,

예능이라면 시즌제로 하나의 아이템이 연속적으로 제작됩니다.

연속성의 장점은 콘텐츠가 반복될 거라는 전제를 함으로써

수용자가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무한도전이나 런닝맨과 같은 예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방송 콘텐츠는 다른 매체와 달리 종일 방송체제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즉시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는 콘텐츠가 영상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것이 현재진행 중이 아님에도

무의식 중에 이를 동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동시성을 통해 여러 미디어와의 경쟁에서도 방송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며 우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④ 몰입과 분산성

‘몰입’은 대개의 스토리텔링이 지닌 특징입니다. 스토리텔링의 몰입성을 높이기 위해 복선, 반전, 카타르시스, 공감대 등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방송 콘텐츠의 경우 조금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책은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한 후 몰입하는 선택적인 몰입이,
영화는 영화를 선택하면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공간 속에서 관람하는
강제적인 몰입이 이루어집니다.

TV를 시청할 때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집중해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입이 잘 되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능 등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정신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몰입이라기보다는

분산된 상태에서 순간순간 빠지는 몰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송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은 조금 느슨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짝 짜인 플롯이 오히려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니시리즈나 주말 연속극의 구성을 영화의 플롯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본에 간략한 줄거리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의 에피소드를 많이 첨가하여 줄거리를 분산시키고 길이를 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성이 느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성입니다.

매 순간 빈틈이 없게 구성하면 지나친 긴장감을 부여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